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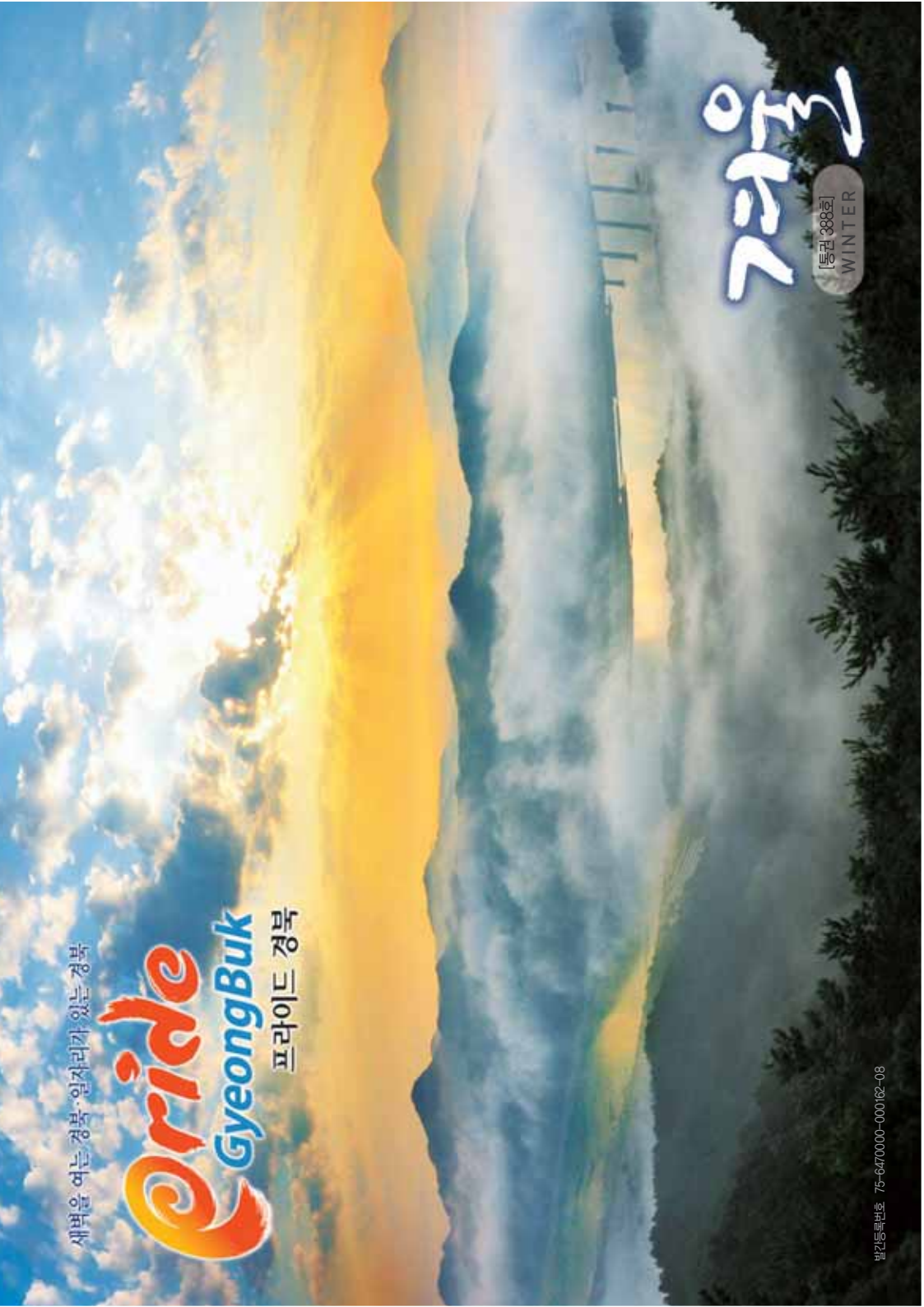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말 아이의 돼지 저금통... 나의 전화 한 통...  
이웃에겐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엔 행복으로 돌아 왔습니다

주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경상북도

행복을 나누는 계좌 | 농협 731-01-002268 | 대구은행 021-05-780444-001 | 예금주: 경북공동모금회(전계좌 수수료면제)  
ARS기부 060-700-0060 기부상담 053-980-7800 gb.chest.or.kr  
TEL: 053-980-7800 FAX: 053-980-7809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청소년·노년·여성·가족·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입니다



겨레의  
[등원 388회]  
WINTER

세변을 여는 정복·임자리가 있는 경북

**P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포항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영덕 해맞이 축제 12.31~1.1 영진 임진년 해맞이행사 14연선 영양 임월산 해맞이 축제 트라이트 경주특별전 (2011.11.19~2012.5.28)	2	3	4	5	6	7 2012 청송 주왕산 전국아이클라이밍선수권대회 (1.7~1.8) 풍이온 옷차시 시즌2 '그그 류나잇' (1.7~1.8)
8	9	10	11	12	13 청송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1.13~1.15)	14 안동 암산얼음축제 나는 꿈수다 포항문화예술회관
15	16	17 비스프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신년음악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18	19 사람교향악단 신년 음악회 포항문화예술회관	20 한시간에 배우는 서양미술 2만년 김천문화예술회관 (2011.12.28~2012.1.27)	21
22	23	24	25	26 매직아트 특별전시 포항문화예술회관 (1.26~2.5)	27	28
29	30	31 세계 일러스트 거장展 2011 동화책 속 세계여행 김천문화예술회관 (2011.12.26~2012.1.31)		안동 석반고 장방제 (2012.1월 중순)		

##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예천 군민수놓이 (2012.2월 예정)	1	2	3	4
5	6 울릉 달맞이 축제 경주 정월대보름 행사 김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청도정월대보름 축제	7	8	9	10	11
12 고대의 문자를 읽다 국립경주박물관 (2012.2.20~2012.2.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배방읍 사도전 경주 이보산미술관 (2011.10.8~2012.2.28) Rainbow Think 영진 시인어반미술관 (2011.5~2012.2.28)	27	28	29 만주영명 100주년 기념특별기획전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2012.2.29까지) 다시 태어나다 상주박물관 기획전시실 (2011.2~2012.2.29)			

# CONTENTS

PRIDEGYEONGBUK  
WINTER. VOL.388

<b>Special Theme</b>	04 "贊" 북 타진 경상북도/ 비결은 소통과 현장! 08 거대한 문화의 물결! 그 진원지는 경상북도!
<b>알찬살림 부자경북</b>	12 2015 제7차 세계물포럼 '대구·경북' 유치 성공! 14 경북도, '유리한인총연합회'와 투자기업 발굴 MOU 체결 15 낙동강 새 물결 따라 새로운 경제도 흘러라!
<b>웃음기득 행복경북</b>	16 경북도,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수립 발표 18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아세요?
<b>밝은미래 희망경북</b>	20 경북도, 낙동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본격 추진 21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22 전통문화 파수꾼에서 마을기업으로 거듭난 영주시 '순흥초군농약대'
<b>도민사랑 일류경북</b>	24 '희망2012 나눔 캠페인' 대장정 시작! 25 제10대 이인선 정무부지사 취임 26 포항 덕동마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
<b>나드리, 이리오시오~</b>	28 경북 겨울여행 떠나요!
<b>프라이드 News+</b>	32 찰칵! 경북의 오늘 37 도정단신 42 도의회 소식 50 경북 알리미 52 지금 시·군에서는 54 독도 영문화보존 발간 55 건강상식



### 표지 이야기

낙동강에 새해가 밝는다.  
경상북도의 희망이 밝아온다.



## WINTER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권오승 · 발행일 | 2012년 1월 2일  
·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공보관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도의 현장행정과 주민소통은 단연 돋보였다!

'2011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평가제도 생긴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

2011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2011 대한민국 소통경영대상,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 지사 공약평가 최우수 등급... 최근 경북도가 전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평가에서 수상한 내역들이다. 이외에도 저출산 극복시책 2년 연속 최우수 등 크고 작은 단위 시책별 평가에서의 수상은 헤아리기에다 벅차다.



□ □ □



### 최고 권위 지자체 평가인 '2011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법정평가다. 그것도 순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그야말로 종합평가다. 한마디로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다.

그런 평가에서 경북도가 1위를 했다. 그것도 평가제도가 생긴 2001년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지난 11월 4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경북도는 총 9개 시책분야 중 6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도 최하등급인 '다'는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평가를 주관한 행안부에서도 의아해했다는 후문.

비결은 바로 '생활도정'이다.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돌이 기동팀', 전국최초의 민간주도 재난대응시스템 '안전기동대', 의료 사각지대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나같이 생활현장에 초점을 맞춘 시책들이다.

또 하나는 '투자유치'와 '일자리'다. 경북의 모든 시책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책 입안부터 일자리 분석을 먼저한다. 추진과정에 일자리 효과를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9조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일자리 1만2천개를 만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합하면 9만개에 달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일자리 뉴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로 받는 상사업비 47억도 일자리 만드는데 쓴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일자리창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받은 상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전국최초로 청년창업센터를 개설했다. 현재 센터에는 50개팀 70명이 입주해 활발한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 '2011대한민국 소통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경북도는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에 이어 또 하나의 경사를 맞았다. 지난 11월 10일 '2011 대한민국 소통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일이다. 종합대상 5개 기관 중에서 지자체로는 경북도가 유일.

'대한민국 소통경영대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한국경제매거진이 주최한 권위 있는 시상이다. 교수·언론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지난 1년 동안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분석·모니터링해서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단에 따르면, 경북도의 현장행정과 주민소통은 단연 돋보였다고 한다. 전통시장, 농촌현장, 복지현장, 문화현장에서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주민들을 통해 그 해결책을 강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시·도지사 공약평가 최우수등급

이뿐만이 아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A' 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5년부터 바른공약운동을 추진해 온 국내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NGO다. 이 단체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부문에 대해 65명의 전문평가단과 36명의 지표평가단을 동원해 지난 1월 3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평가한 결과다.

여기서도 소통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자리, 투자유치, 농어가경쟁력확보 등 도민 생활위주의 공약내용도 높게 평가되었다.

출산장려 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 개별시책평가에서도 많은 수상

이러한 종합평가뿐만 아니라, 개별시책 평가에서의 수상실적도 엄청나게 많다. '일자리창출 전국 최우수', '출산장려시책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재난대응훈련평가 대통령표창', '보훈문화대상 수상',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최우수', '한국관광의 별 5개 부문 석권' ...

이러한 평가와 함께, 민간경제연구소 주관의 경제지수 분석에서도 경북도는 단연 돋보였다. 지난 7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11년 상반기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분석에서 45.1을 기록,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소통과 현장... 경북도의 행정방향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듯 2011년 한 해 경북도가 이룬 성과는 대단하다. 권위 있는 상은 휩쓸다시피 했다. 한마디로 상복이 터졌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장과 소통'이다. "현장에서 길을 찾고 소통에서 답을 구한다" 이는 바로 김관용 경북지사의 행정 모토다. 늘 "현장으로 가라, 앉아서는 답이 없다"고 강조한다. 김지사는 지난 한 해에만 109,530km를 달렸다. 하루 평균 300km를 상회한다. 지구 두 바퀴를 더 돈 셈. 현장에 살다시피 했다.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경상북도, 국토면적의 5분의 1, 서울의 31배다. 특성도 다양하다. 북부산악지대, 남부도시권, 동부해안지대. 격차도 많다. 인구 1만의 울릉군에서부터 인구 50만의 포항시까지. 이렇다 보니, 김지사의 말처럼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책상에 앉아서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공직자들도 한결같다. 모든 일에 있어 현장실행을 최우선시 한다. 현장에서의 효과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한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주민과 함께한다. 경북전역에 불어 닥쳤던 구제역 사태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낸 것이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전 직원이 현장에 매달려 몸으로 헤쳐 나갔다.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경북도정. 각종 평가가 말해주듯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도내 구석구석에서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투자유치, SOC, 과학기반, 농축수산업 등등 도민 삶의 전 분야에서 많은 성취가 있었고, 점점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소통과 현장의 경북도정. 앞으로 더 많은 성과들이 기대된다.





## 경상북도, 문화를 통한 산업화와 세계화로 문화르네상스 이룬다!



경북으로부터 거대한 문화의 새 물결이 일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류 드림페스티벌, 세계유교문화축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유엔세계관광기구총회 (UNWTO) 등... 세계인들이 열광케 한 이들 행사 모두가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 경상북도는 문화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 세계인이 격찬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신라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

지난 10월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는 60일 동안 155만명이 몰렸다. 외국인이 무려 15만 명이 찾았다. 한결같이 '원더풀'을 연발했다. 탈렘 리파이 UNWTO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기술의 수준은 정말 놀랍고, 콘텐츠 하나하나가 환상적이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주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년도읍지다. 노천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바로 이러한 신라문화에 첨단문화기술을 입힌 것이 주효했다.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로 풀어낸 것도 돋보였다. 100개 넘는 콘텐츠마다 스토리를 담았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었다. 사람들을 끌어 들인 이유다.

주제공연인 퓨전무술극 '플라잉'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팔을 받고 있다. 3D 입체영상 '벽루천'은 수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2013년에는 동서 문명의 교두보 터키 이스탄불로까지 진출한다. '2013경주-이스탄불세계문화엑스포'가 바로 그것.

이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것을 증명해 보였다. 또 하나는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보는 문화에서 즐기는 문화로, 즐기는 문화에서 돈 되는 문화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와 세계 문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한데 어우린 문화융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관광올림픽 UNWTO... 세계 관광리더 경주에 총출동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 동안 세계 관광리더들이 경주에 총집결했다.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총회(UNWTO)가 바로 그것이다. 2001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래 1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그것도 지방도시에서는 사상 최초로 경주에서 열렸다.

이번 경주총회에는 125개국 800여명의 유력 관광인들이 참가했는데, 장관급이 68명. 역대 최고, 최대였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가치와 경북의 면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다.

총회장에는 경북문화와 한국문화를 집약한 홍보관을 설치했고, 행사장이 위치한 보문단지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격조 높은 공연이 이어졌다. 세계 관광인들을 위한 경북투어도 매일 진행됐다.

총회에 참석한 유엔사무총장 경제특보인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이번 경주총회는 전 세계 10억 관광객들이 서로 다른 나라를 관광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했다.

### 한류드림페스티벌, 안동세계탈춤페스티벌, 세계유교문화축전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간 열린 한류드림페스티벌도 경주에서 열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이라 시너지가 대단했다. 류시원 팬미팅, 한류드림콘서트, 케이팝(K-POP) 커버댄스 세계대회 등등. 2만3천 관객이 운집하고 9천명이 넘는 외국인이 몰렸다. 시대적인 문화코드 한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경주가 해낸 셈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올해에도 107만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세계 각국의 탈춤이 총망라됐고, 관객들이 직접 탈춤을 쳤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에도 이렇게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놀랐다”는 반응.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와 더불어 유교문화의 본산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민간이 주도해 되어 ‘세계유교문화축전’을 열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다양한 문화행연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순수 지역의 힘으로, 지역민에 의해서 실경뮤지컬 ‘왕의 나라’를 공연해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오기도 했다.



### 문화르네상스... 경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문화와 관련한 경북의 시도는 참으로 다양하고 신선하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전통이 있고, 목표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경북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경북은 한국문화의 본산이기 때문이다. 신라 가야 유교의 3대 문화의 근원지가 경북이고, 전국 문화재의 20%를 경북이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10개 중에 3개를 경북이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태적인 자원도 무궁무진하다.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 1300리 중에서 경북구간만

700리다. 백두대간도 경북에 가장 길게 뻗어 있다. 주왕산,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만 5곳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북은 콘텐츠의 공장이다. 천년도읍 경주는 풀 한포기 돌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있다. 무궁무진한 전설, 설화, 신화가 생생하게 전해져 온다. 안동의 유교문화도 그렇다. 문화유산 하나하나에 한국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 경북관광공사... 문화의 세계화, 관광의 내수화를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

이러한 경북문화를 한국의 대표문화로 엮어내고 이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추진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북관광공사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흡수하여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경북의 문화적 자산을 콘텐츠로 만들고, 이를 마케팅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복안.

이를 위한 공사설립 조례안이 지난 10월 18일 경북도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한 작업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문화와 관광의 축이 경북으로 이동될 전망이다. 우수한 문화적 자산과 이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한발 앞선 전략이 있고, 이를 추진할 동력까지 갖추게 되었으니 말이다. 문화를 통한 산업화와 세계화 전략. 경북의 앞선 시도는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낙동강 르네상스시대' 연다!

## 물산업 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



World  
Water  
Forum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수자원 분야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세계물포럼 유치에 성공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11월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3차 세계물위원회(WWC) 이사회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 선정에는 한국, 영국, 스코틀랜드, UAE, 남아공 등 5개국이 뛰어들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제치고 대구·경북이 최종 낙점된 것이다.

경북도는 낙동강 중심의 한국의 역사, 문화 및 경제성장의 중심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규모 성공사례 지역인 낙동강 수계의 생태·하천 복원 성공 스토리, 다목적댐과 보 등 수자원 관리 및 수처리 시설을 비롯해 경주-안동의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우수한 컨벤션 시설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경험, 실사 방문 시 보여준

시·도민의 유치열기가 마침내 이사진의 마지막 표심을 얻어낸 성공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제1차 세계물포럼이 1997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이래 아시아에서 개최되기는 2003년 일본 이후 12년 만이며,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개최국이 한국이다.

제6차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 본부가 소재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내년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이 기간 중 '대구·경북'이 차기 개최도시로 공식 선포되고, 인계식(Handover Ceremony)도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은 21세기 인류의 과제인 세계 물 문제(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는 10억명이 물 부족, 세계 26억 인구가 하수처리 문제로 고통, 비위생적인 물소비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 매년 8백만명)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정부간 기구인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제안으로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 전후로 개최되는 수자원분야의 가장 크고 권위 있는 국제행사이다.

세계물포럼 행사에는 200여 개국의 수반, 장·차관, NGO, 민간인 등 30,000여명이 참가하며, 국가수반 및 장관급회의, 120여개 주제별 세션, 물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이 1주일간 개최되어 경제파급효과가 1천 993억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도 1천 900여명에 달한다.

세계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지역의 물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국제화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중심 도시 및 지역으로서의 발전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낙동강·형산강 등 6개의 국가하천과 안동댐·임하댐 등 10개 댐의 풍부한 수자원, 동해 청정수역의 해양심층수 및 울릉도지역의 용천

수 등 타 지자체와 비교 우위에 있는 수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맴브레인(여과막)을 이용, 하·폐수처리장 방류수를 음용수 수준으로 재이용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글로벌기업의 육성에서부터 해수의 담수화 및 동해안 심층수를 이용한 연관 산업 육성, 수자원과 관광 및 생태를 연계한 3차 산업 육성이 지 아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수자원분야의 가장 크고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2015 제7차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구·경북의 '新 낙동강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기존의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Post-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 문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낙동강명'의 르네상스를 꽃피워야한다"며 물산업을 녹색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전국 지자체 최초, 유럽 20개국 한인연합회를 투자동향 입수창구로 활용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유럽지역 투자유치 활동



경상북도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유럽지역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 KOTRA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오스트리아 H사, 이탈리아 A사, 스페인 A사, B사 등을 방문하여 경북지역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투자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스페인의 A사는 경북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으로 증액투자는 물론 관련 부품공장 신설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또한 경북도는 11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유럽의 유망 투자유치기업 공동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럽 20개 국가의 한인연합회 조직과 그 소속회원 12만명을 유럽기업의 한국진출 투자동향 입수 창구로 활용하고, 유럽내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 한인들이 투자유치 및 통상교류 확대를 위한 '조력자'로 활동케 함으로써 해외 현지사정에 밝은 '한인 네트워크'를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및 통상교류

활동에 접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경상북도가 2011년 1월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한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박종범 회장의 주도로 조직되어 11월 18일 이번 경상북도와와의 MOU를 첫 공식행사로 처음 출범했으며, 유럽 20개국 한인연합회 대표와 유럽 5개 지역 대표로 구성되어 소속 회원수는 영국 4만7천명, 독일 3만2천명, 프랑스 1만3천명 등 유럽 20개 국가에 총 12만1천여 명이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은 "경상북도는 지금까지는 다른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격적이고 성과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유럽한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유럽한인총연합회에게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 통신키,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성공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낙동강 구간 6개보 개방행사, 도민과 함께 한마당 축제

### 지역 랜드마크로 탄생,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

경상북도는 10월 15일 구미보를 시작으로, 10월 22일 강정고령보, 10월 29일 함안장녕보, 11월 10일 칠곡보, 11월 12일 낙단보, 11월 16일 상주보 등 낙동강 구간에 설치한 8개보 중 6개보의 개방행사를 개최했다. 나머지 달성보, 장녕합천보 등 2개보는 내년 2월경 개방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낙동강 보 개방행사는 그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보 및 수변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고 '낙동강 새 물결' 개통을 지역민과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경상북도는 지역별 랜드마크로 거듭난 낙동강 보와 수변공간을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무터미 복원하고, 종합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탄생한 낙동강 보는 홍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수력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낙동강이 2년간의 산고 끝에 산 업화가 남긴 '오염의 강, 단절의 강, 메마른 강'이란 오명을 벗고, '생명의 강, 문화의 강'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수변 공간을 품격 높은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류에도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여 문화, 레저·관광을 통해 경제가 흐르는 미래의 강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시키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 농촌에서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을...

2020년까지 귀농인 1만5천가구 안정 정착 목표



농촌에서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침체된 농업·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귀농·귀촌시책'을 수립, 10월 13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선도 귀농·귀촌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귀농·귀촌지원 시책'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미래 우수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기존의 생계형 지원 시스템에서 영농목적형, 농촌체류형, 전원생활형 등 유형별로 보완, 재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탈바꿈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준비에서 정착'까지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 코디네이터 육성, 멘토링제(귀농인-지역지도자-공무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경북농민 사관학교를 통한 귀농인 교육과정 확대 및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동화 융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귀농·귀촌 한마당잔치, 결혼이주여성 후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실태조사, 민간 귀농모임 활성화 및 귀농·귀촌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농촌 건설은 물론 '경북도에서 새일터, 새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2020년 까지 귀농·귀촌 1만 5천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북도는 귀농·귀촌자 상담을 위해 도와 시·군에 전담부서 운영, 귀농전화(1577-2337)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농촌보육정보센터 12개소를 운영하여 자녀들의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및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등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귀농정착 지원사업,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2009년에 이어 지난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농하여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가 되었다.(귀농·귀촌 동향 : 2009년(1,118가구), 2010년(1,112가구), 전국 27%)

김관용 도지사는 사업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경북 귀농·귀촌포럼 구성 운영 및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추진으로 농업·농촌이 돈이 되고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귀농 준비 단계부터 안정 정착까지 철저한 멘토링제와 귀농인들이 지역사회와의 동화·융합되는 기회제공 및 귀농·귀촌자 자생 모임 활성화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 경험과  
세월의 지혜로 손자를 가르치던

# 할머니의 무릎교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옛~날 옛날~에... 흙부리 할아버지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해가 떨어져 외딴 빈 집에서 쉬어가려고... 혼자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는 요즘 TV에 방영되는 만화영화에 비길 바가 아니다. 때로 무서운 도깨비라도 등장할 때면 무서워 할머니 무릎을 파고들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에서 귀를 뗄 수가 없었다. 예전 할머니들은 모두가 이야기꾼이었던 듯하다. 또한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옛 이야기는 레퍼토리로도 무궁무진했다.



예전에는 명문가는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생활하면서 익힌 경험이나 깨달은 지혜로 부모 대신 한 대를 걸러 손자를 대함으로써 지나친 애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길을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신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이야기 할머니'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미래세대 민족문화 전승사업'에 따라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인성연수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을 통해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하여 전국의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옛 어른들의 미담이나 귀감이 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현재 서울과 대구·경북지역 유아교육기관 300여 곳에서 이야기 할머니 100여명이 활

동 중이다. 또 2011년에는 선발지역을 제주도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만 56세 이상 고령인 직업이 없는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편(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번지 한국국학진흥원 인성연수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팀)으로 지원신청서를 받아, 수도·강원권 100명, 충청·전라권 100명, 영남권 100명 정도를 선발하여 6개월간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2012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2년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파견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파견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등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www.koreastudy.or.kr)에서 파일을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 FAX로 보내면 된다. 보낸 후에는 필히 전화로 접수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이다. 최종 파견 확정(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및 통보는 2012년 1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파견은 지역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 : 한국국학진흥원 인성연수관 이야기 할머니 사업팀  
(Tel. 054-851-0776, 0778 / FAX. 054-851-0858)

## 황포돛배 드나드는 낙동강 나루터 되살린다!

2013년까지 낙동강 나루 문화 복원, 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경상북도는 낙동강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낙동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2013년까지 국비 15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낙동강변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은 전통 나루터와 주막 체험, 강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낙동강 신나루 조성' 사업에 국비 127억 등 254억원을 투입, 안동 개목나루, 상주 회상나루, 구미 비산나루, 고령 개경포나루를 복원하고, 나루터별로 이색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3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94억원을 투입하여 안동 개목나루 조성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낙동강 레포츠 구역 조성' 사업에 국비 31억 등 63억원을 투입하여 낙동강변에 친환경적인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낙동강 신나루 조성사업은 과거 낙동강 유역에 존재했던 100여개 나루 중 역사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연계 가능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이 풍부한 안동 개목나루, 상주 회상나루, 구미 비산나루, 고령 개경포나루 등 4개의 나루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막과 나루터를 조성하고, 황포돛배를 도입해 뱃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루터별 차별화된 테마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낙동강 레포츠 구역 조성사업은 고령군 우곡면 부례지구에 산악자전거 레저공간을 조성하여 대구 달성지역의 수변 레저스포츠 지구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산악스포츠코스 개설, 산악레저지원센터 조성, 캠핑장, 바이크텔, 강과 산을 연계한 인공암벽 등반장, 리버질라인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도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

2011 경북농어업인대상 전체대상에 채소특작부문 박이준씨



경상북도는 김관용 도지사,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1일 대구시 북구 구암동 소재 함지근린공원에서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각 시·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관 운영 및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음식 전시와 가래떡을 소비자에게 나눠주고, 관람객들이 직접 탈곡체험을 하는 등 도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2011년 경북농어업인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체 대상에 채소특작부문 박이준(청도군 청도읍), 분야별로는 식량생산 민경록(김천시 감문면), 친환경농업 남기호(예천군 개포면), 화훼 이용우(봉화군 봉성면), 수출 원용덕(의성군 의성읍), 가공유통 홍태근(군위군 부계면), 축산 오삼규

(영주시 단산면), 수산 정성화(포항시 구룡포읍), 기술개발 연구지도 한승자(상주시 공성면), 여성농업인 이정남(경산시 남방동), 농어촌개발 조원제(영천시 화북면)씨 등이 각각 수상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에는 이상기온과 잦은 강우 등으로 수확이 줄었음에도 깨끗하게 농촌현장을 지켜온 농업인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격려하고, "부자농어촌 프로젝트를 추진, 2017년까지 역대농가 2만호 육성과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업CEO 1만5천명을 양성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가공·수출 등에 경북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대표 '마을기업' 으로 우뚝!

벗짚 공예, 우마차 체험 등 영주 선비촌 관광의 소프트웨어 제공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찡~합니다!”

누렁이 황소가 끄는 달구지가 느린 걸음으로 전통가옥들이 울퉁퉁한 선비촌을 한 바퀴 돌아오자 달구지 멍석에 앉았던 이는 향수에 젖는다.

콩~떡 콩~떡, 모락모락 하얀 김이 나던 찹쌀밥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떡에 둘러치기에 점점 떡이 되어가는 순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침을 꿀꺽 삼킨다. 어느새 노란 고물에 굴려 만들어진 인절미는 눈 깜짝할 사이 사람들의 입속으로 사라진다.

그 뒤편 초가지붕을 멋스럽게 엮은 작업장에서 활아버지 두 분이 벗짚을 꼬아 짚신, 소쿠리를 만들고 있고, 다른 한 분은 나뭇조각을 요리조리 붙여가며 양충모양을 만들고 있다. 손재주에 연신 감탄하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완성된 짚신을 들어 보이며 가격을 흥정하기도 한다.

경북 영주시의 대표관광지인 '선비촌'을 찾는 관광객은 평일 2,000명, 주말이면 3,000~4,000명에 이르러 최근 들어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짚풀 및 나무 공예품, 소달구지 및 떡메 체험 등 '선비촌'만의 남다른 소프트웨어 때문. 이러한 '선비촌' 관광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곳은 마을기업 '순흥초군농약대'이다.

'순흥초군농약대'는 지난 3월 경북도에서 공모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

작, 경북도와 영주시의 보조금 5,000만원과 농약대 자비 2,000만원을 보태 7,000만원의 창업자금으로 소와 달구지를 구입하고 선비촌 내 작업장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벗짚·나무 공예, 인절미 만들기 등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원천기술로, 나무와 벗짚 등 저렴한 원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마을기업'을 시작한 지 5개월 남짓, 지난 10월말 현재 4,0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 지역공헌사업에 기여할 사회환원사업금 600여만원까지 적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개당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 짚풀·나무 공예품과 한 쪽에 3,000원짜리 인절미를 판매하고, 어린이 1인당 3,000원 정도 받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치고는 상당한 성공이다.

'순흥초군농약대' 대원 33명, 이들 중 9명은 선비촌 내 작업장으로 매일 출근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공예품을 만들다가 오후 6시쯤 퇴근하는 것이 하루 일과. 매일 출근하지 않는 다른 어르신들도 초가지집 지붕을 새로 설치하는 등 대규모 작업의뢰가 들어올 때에는 총출동한다.

또 농약대 공원이 있는 날에도 대원 모두가 북, 징, 장구, 태평소, 팽과리 등의 연주는 물론 상모, 농요, 연기 등 역할

분담으로 1인 2역을 소화한다. 그 실력 또한 2008년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어르신들이다. 작지만 마을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급여로 받는 번듯한 직장인들이기도 하다.

마을기업 '순흥초군농약대' 대표인 손택종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이 생길 수 있게 한 마을기업 활동을 지원하게 돼 영광”이라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더 열심히 지원해서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사업영역도 확장해서 더 규모가 큰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으면”하는 바람을 밝혔다.

올 겨울에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고, 내년 선비촌과 안동 안화마을, 문경세계 드라마세트장 등의 초가지붕 설치작업의 선점을 추진하는 등 비수시 사업 아이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경상북도 대표 마을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마을기업으로 인정받는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

경상북도는 2014년까지 100개의 마을기업을 선정·육성하여 1,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소득증대로 지역공동체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마을기업이란?

-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1월 31일까지 62일간, 올해 경북도 모금목표액 95억원

경상북도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2월 1일 도청 앞마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상호 도의회 의장, 이만희 경북지방경찰청장, 이대공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사랑의 열매 달기, 희망의 메시지 선포 및 사랑의 온도담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 발대식에서는 2011년도 기획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랑의 열매 차량 전달식을 진행하여,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승합차 24대와 경승용차 1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희망2012 나눔 캠페인'은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며, 올해 경북도의 모금목표액은 95억원으로 지난 해 모금 목표액 90억 대비 5% 증가한 금액이며, 270만 경북도민이 1인당 3,518원씩, 62일간 매일 57원을 기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해 올해에도 언론사 방송모금, 시·군 가두모금 캠페인, 금융기관 모금, 학교 모금, ARS 모금, 물품 모금 등 다양한 나눔참여 방법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도 단위로는 최초 여성 부단체장

과학전문가, 여성의 섬세함으로 '부자경북, 행복경북' 실현

경상북도 제10대 이인선 정무부지사가 11월 1일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도(道) 단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이 된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18일 퇴임한 공원식 정무부지사 후임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원장, 교과부 지방과학기술진흥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위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계명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부지사는 1977년 경북여고, 1982년 영남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3년간 일본 국립약학품 식품위생연구소(NIHS) 방문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1996년 국제소화기학회 '젊은 과학자상', 2004년 제1회 대구시 목련상, 올해 과학기술유공훈장을 수상했다.

이 선임 부지사는 11월 1일 도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문제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지 경북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 동안 학계와 관계의 경험 대부분을 과학기술계에서 쌓아왔다"며, "이런 경험과 전문성, 과학기술계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경북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일의 중심으로 삼고, 민선5기 도정목표인 투자유치 20조원, 일자리 22만개 창출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목표도 전했다.

끝으로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의 도정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마을에 전해오는 역사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

## 경북도, 산재한 기록유산·문화자원 찾는 '내고장 역사 찾기' 사업 추진

경북 포항시 기록면 덕동마을이 대한민국 제4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11월 10일 덕동마을에서 송귀근 국가기록원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김성경 포항부시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사랑마을 지정 행사'를 열어 국가기록원과 '기록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록정보 공동 활용' 교류협약을 맺고 기록사랑마을 지정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덕동마을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많은 역사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록역사의 보고 지역이다. 조선 후기 문중 사당을 이해하는데 사료적 가치가 있는 여주 이씨(李氏) 가문의 세덕사(世德祠·서원) 관련 자료와 경상북도문화재 제552호로 지정된 18세기 고문서 67점 등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덕동마을 내 위치한 '덕동민속전시관'은 마을의 역사를 대변하는 고서적, 고문서, 일상생활용품, 농기구 등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 지정은 민간기록물의 관리 기반을 마련해 주민의 기록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 8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등 4곳이 지정됐다.

정병윤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덕동마을의 '기록사랑마을' 지정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려 중요한 지식정보자원으로, 자랑스러운 기록문화유산으로 계승해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내고장 역사 찾기'라는 주제로 지방에 산재한 기록유산과 문화자원을 찾아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8천여 점의 기록자원을 발굴하는 등 기록유산을 통한 지방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덕동마을은 조선의 대유학자인 회재(晦齋) 이언적의 동생 용재(龍齋) 이언팔의 4대손인 이강(李壘)이 경주 양동마을에서 50리 떨어진 이곳에 정착, 360여 년간 대를 이어 살아온 여강이씨 집성촌이다.

덕동마을의 덕동은 덕 있는 인물들이 많다는 의미로 불린 지명으로 삼연(三淵)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용계정(龍溪亭) 뒤의 연못에서 연유하며 일명 덕협(德峽)이라고도 불린

것은 지형에 의한 것이다.

숙종 14년(1687년)에 준공한 정루 용계정을 비롯해 예은당고택, 사우정(관아건물), 여연당(이원돌 가옥), 덕계서당 등 각종 문화유적이 잘 보존 관리돼 있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독특한 문화로 높이 평가받아 지난 199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시범 문화마을, 2006년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로부터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덕동 송계숲이 소재한 유서 깊은 마을이다.



www.gyeongbuk.go.kr  
**하얀겨울에 만나요**  
**경상북도**  
The Best of GYEONGBUK WINTER



**TRAVE**

하얀 겨울, 겨울이 사랑스럽기 시작하고 겨울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겨울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겨울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Contents**

04. 해외 여행정보
06. 집안 나들이 하는 방법
08. 겨울이 있는 전통의 아름다움
10. 겨울이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12. 겨울이 있는 문화의 아름다움
14. 겨울이 있는 관광의 아름다움
16. 겨울이 있는 겨울의 아름다움
18. 겨울이 있는 겨울의 아름다움
20. 겨울이 있는 겨울의 아름다움

**새하얀 희망일출**

북쪽은 동해와 맞닿아 있어 겨울을 보기 만발했습니다. 차가운 맑은 보루 있고, 겨울에 어울리는 겨울 보케, 남쪽보다 한참 먼저 희망의 하루를 맞이해 보세요.

**동해의 희망일출**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문무대항동 | 파주**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실사 해상공원 | 영덕**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내수천 일출전망대 | 울진**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동해의 겨울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장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행에서 벗어나 남들이 보는 나를 잠시 잊고, 신사에서 옛날의 장된 모습을 찾아 보세요.

**고운사 | 영주**

영주에 있는 고운사는 신라시대 고운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대승사 | 문경**

문경에 있는 대승사는 신라시대 대승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문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진유사 | 영주**

영주에 있는 진유사는 신라시대 진유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심원사 | 영주**

영주에 있는 심원사는 신라시대 심원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자비선사 | 영주**

영주에 있는 자비선사는 신라시대 자비선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선석사 | 영주**

영주에 있는 선석사는 신라시대 선석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몽정사 | 영주**

영주에 있는 몽정사는 신라시대 몽정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청암사 | 영주**

영주에 있는 청암사는 신라시대 청암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꼽힌다.

**즐거움이 있는 편편(fun fun)한 여행**

편편이 편편이 있는 겨울 여행. 편편이 편편이 있는 겨울 여행. 편편이 편편이 있는 겨울 여행.

**경주도 눈썰매장 | 경주**

경주에 있는 경주도 눈썰매장은 겨울철 가족 여행의 최적지입니다.

**마우나오션 눈썰매장 | 울진**

울진에 있는 마우나오션 눈썰매장은 겨울철 가족 여행의 최적지입니다.

**관천대원도 눈썰매장 | 울진**

울진에 있는 관천대원도 눈썰매장은 겨울철 가족 여행의 최적지입니다.

**송부리 얼음썰매장 | 울진**

울진에 있는 송부리 얼음썰매장은 겨울철 가족 여행의 최적지입니다.

**노들리 직박갓마을 바다낚시 | 울진**

울진에 있는 노들리 직박갓마을 바다낚시는 겨울철 가족 여행의 최적지입니다.

**죽전파재 낚시 | 울진**

울진에 있는 죽전파재 낚시는 겨울철 가족 여행의 최적지입니다.




**겨울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  
겨울엔 온갖 눈이 내릴 때마다 유쾌한 축제가 가득합니다. 특히 눈이 내리면 더욱 즐거운 겨울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4년 겨울 축제**  
1. 1월 11일 (토) 10:00~18:00  
2. 1월 12일 (일) 10:00~18:00  
3. 1월 13일 (월) 10:00~18:00  
4. 1월 14일 (화) 10:00~18:00  
5. 1월 15일 (수) 10:00~18:00  
6. 1월 16일 (목) 10:00~18:00  
7. 1월 17일 (금) 10:00~18:00

**2014년 겨울 축제**  
1. 1월 18일 (토) 10:00~18:00  
2. 1월 19일 (일) 10:00~18:00  
3. 1월 20일 (월) 10:00~18:00  
4. 1월 21일 (화) 10:00~18:00  
5. 1월 22일 (수) 10:00~18:00  
6. 1월 23일 (목) 10:00~18:00  
7. 1월 24일 (금) 10:00~18:00

**2014년 겨울 축제**  
1. 1월 25일 (토) 10:00~18:00  
2. 1월 26일 (일) 10:00~18:00  
3. 1월 27일 (월) 10:00~18:00  
4. 1월 28일 (화) 10:00~18:00  
5. 1월 29일 (수) 10:00~18:00  
6. 1월 30일 (목) 10:00~18:00  
7. 1월 31일 (금) 10:00~18:00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가족 겨울여행**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여행,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다양한 겨울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포스폴퍼즐보존관** | 포지  
1. 1월 11일 (토) 10:00~18:00  
2. 1월 12일 (일) 10:00~18:00  
3. 1월 13일 (월) 10:00~18:00  
4. 1월 14일 (화) 10:00~18:00  
5. 1월 15일 (수) 10:00~18:00  
6. 1월 16일 (목) 10:00~18:00  
7. 1월 17일 (금) 10:00~18:00

**신라 달레니벌피크닉** | 포지  
1. 1월 18일 (토) 10:00~18:00  
2. 1월 19일 (일) 10:00~18:00  
3. 1월 20일 (월) 10:00~18:00  
4. 1월 21일 (화) 10:00~18:00  
5. 1월 22일 (수) 10:00~18:00  
6. 1월 23일 (목) 10:00~18:00  
7. 1월 24일 (금) 10:00~18:00



**전통문화 체험으로의 초대**  
한국의 전통, 역사, 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곳곳에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곡역사문화관광단지** | 포지  
1. 1월 11일 (토) 10:00~18:00  
2. 1월 12일 (일) 10:00~18:00  
3. 1월 13일 (월) 10:00~18:00  
4. 1월 14일 (화) 10:00~18:00  
5. 1월 15일 (수) 10:00~18:00  
6. 1월 16일 (목) 10:00~18:00  
7. 1월 17일 (금) 10:00~18:00

**한진공예관** | 포지  
1. 1월 18일 (토) 10:00~18:00  
2. 1월 19일 (일) 10:00~18:00  
3. 1월 20일 (월) 10:00~18:00  
4. 1월 21일 (화) 10:00~18:00  
5. 1월 22일 (수) 10:00~18:00  
6. 1월 23일 (목) 10:00~18:00  
7. 1월 24일 (금) 10:00~18:00

**한진공예관** | 포지  
1. 1월 25일 (토) 10:00~18:00  
2. 1월 26일 (일) 10:00~18:00  
3. 1월 27일 (월) 10:00~18:00  
4. 1월 28일 (화) 10:00~18:00  
5. 1월 29일 (수) 10:00~18:00  
6. 1월 30일 (목) 10:00~18:00  
7. 1월 31일 (금) 10:00~18:00



**겨북일원의 가볼만한 온천**  
겨울엔 따뜻한 온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을 즐기면서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온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산온천** | 포지  
1. 1월 11일 (토) 10:00~18:00  
2. 1월 12일 (일) 10:00~18:00  
3. 1월 13일 (월) 10:00~18:00  
4. 1월 14일 (화) 10:00~18:00  
5. 1월 15일 (수) 10:00~18:00  
6. 1월 16일 (목) 10:00~18:00  
7. 1월 17일 (금) 10:00~18:00

**도산온천** | 포지  
1. 1월 18일 (토) 10:00~18:00  
2. 1월 19일 (일) 10:00~18:00  
3. 1월 20일 (월) 10:00~18:00  
4. 1월 21일 (화) 10:00~18:00  
5. 1월 22일 (수) 10:00~18:00  
6. 1월 23일 (목) 10:00~18:00  
7. 1월 24일 (금) 10:00~18:00

**사실온천** | 포지  
1. 1월 25일 (토) 10:00~18:00  
2. 1월 26일 (일) 10:00~18:00  
3. 1월 27일 (월) 10:00~18:00  
4. 1월 28일 (화) 10:00~18:00  
5. 1월 29일 (수) 10:00~18:00  
6. 1월 30일 (목) 10:00~18:00  
7. 1월 31일 (금) 10:00~18:00



**그림이 있는 겨울풍경 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는 다양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겨울엔 더욱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한진공예관** | 포지  
1. 1월 11일 (토) 10:00~18:00  
2. 1월 12일 (일) 10:00~18:00  
3. 1월 13일 (월) 10:00~18:00  
4. 1월 14일 (화) 10:00~18:00  
5. 1월 15일 (수) 10:00~18:00  
6. 1월 16일 (목) 10:00~18:00  
7. 1월 17일 (금) 10:00~18:00

**한진공예관** | 포지  
1. 1월 18일 (토) 10:00~18:00  
2. 1월 19일 (일) 10:00~18:00  
3. 1월 20일 (월) 10:00~18:00  
4. 1월 21일 (화) 10:00~18:00  
5. 1월 22일 (수) 10:00~18:00  
6. 1월 23일 (목) 10:00~18:00  
7. 1월 24일 (금) 10:00~18:00

**한진공예관** | 포지  
1. 1월 25일 (토) 10:00~18:00  
2. 1월 26일 (일) 10:00~18:00  
3. 1월 27일 (월) 10:00~18:00  
4. 1월 28일 (화) 10:00~18:00  
5. 1월 29일 (수) 10:00~18:00  
6. 1월 30일 (목) 10:00~18:00  
7. 1월 31일 (금) 10:00~18:00

### 경북도, 영천지역 강소기업 증설투자에 대한 MOU 체결 진양공업(주)·(주)한중, 지역내 추가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

경상북도는 11월 15일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이택우 진양공업(주) 대표이사, 김환식 (주)한중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지역내 증설투자과 관련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천에 소재한 진양공업(주)와 (주)한중은 작지만 내실 있는 강소기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진양공업(주)가 600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제2공장을 증설하여 9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주)한중은 250억원을 투자하여 90명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학술세미나 개최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사진전, 환수염원 서명운동 동시 개최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는 11월 24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김관용 도지사, 황상조 도의회 부의장, 지역박물관장,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 국외소재문화재 사진전과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경북도는 지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일본과 미주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문화재찾기운동 범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국외소재 문화재가 가장 많은 일본지역의 우리문화재 실태와 환수가능성 등을 취재해 2012년 5월 방영을 목표로 해외로게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다.



### 아프리카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북도-농협중앙회-UNWTO ST-EP재단, MP재단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는 10월 9일 경주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UNWTO ST-EP재단 도영심 이사장, MP재단 제프리 삭스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농업 개발형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MP재단에 50만 달러 지원과 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인 TYSL(Thank You Small Library) 사업을 위해 ST-EP재단에 10만불 지원, 기자, 수혜자 등 관계기관 간의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체제 구축과 직업훈련, 농자재 지원, 농업기술 전수 등 포괄적 지원이 담겨 있다.

### 김관용 도지사, 한·미 FTA 농축산대응책 마련 현장 행보 '경북농업 현대화 10대 과제' 선정, 정부지원 강력 촉구

경상북도는 한·미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과수 최대생산지이자 한미FTA 최대피해지역인 경북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군위군 소재 한우농가에서 '한미FTA 대응 농축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11월 25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관 연석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FTA시대 '경북농업 현대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앙부처에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11월 초 농어업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과 피해농어가 보완대책을 위한 정책지원자금 지원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 경북도·구미시→신화정밀(주)·(주)타카하시테크노 MOU 체결 구미 부품소재전용공단 7백만불 투자, 자동차용 엔진부품 생산

경상북도는 10월 11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조승현 신화정밀 대표, 타카하시 야스히사 타카하시테크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자동차엔진 부품분야의 기술노하우를 가진 일본 타카하시테크노와 신화정밀이 구미 부품소재전용공단에 7백만불을 합작 투자하여 자동차엔진 밸브트레인 부품을 내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여 국내수요는 물론 중국에 수출할 예정으로 관련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 경북도·영천시·경자청→(주)다이셀 투자양해각서 체결 영천첨단부품소재지구에 2천6백만불 투자

경상북도는 11월 2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미야자키(주)다이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동차부품(에어백용 가스발생장치)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일본 다이셀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첨단부품소재지구에 2천6백만불을 투자, 자동차에어백용 부품을 2013년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관련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글로벌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단' 개소 경북도, 원자력클러스터 그 서막을 연다!

경상북도는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함께 세계 최초로 원전 기초 기능교육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단' 개소식을 11월 15일 경주시 양북면 현지에서 개최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한수원, 경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 공동으로 총 30억원을 들여 경주시 양북면 소재 옛 양북초등학교에 교육장을 마련, 지난 10월부터 특수용접과정 30명을 모집해 1년 동안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경북·대구지역 안보와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 경북도·대구시·50사단, 특전예비군 부대 창설 및 재난지원 MOU 체결



경상북도는 대구시·50사단과 함께 11월 12일 육군 제50사단 연병장에서 대구·경북 특전예비군 부대 창설식을 가졌다. 예비군 7년차 이상 및 60세 이하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된 특전예비군 부대원들은 대구·경북 지역 특전사 출신 중 지원자 132명(경북 87명, 대구 45명)으로 구성, 국가 위기 상황 시 중요시설 방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재난발생 시에는 구조·구호 활동 등 인명구조 지원활동에도 나선다.

또 경북도·대구시·50사단은 특전예비군부대 창설식 행사 전에 별도로 재난대비 상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재난에 대비한 민·관·군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다졌다.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 영남권 5개 시·도의 상생발전과 새로운 도약 위한 공동 합의

김관용 도지사는 11월 3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경북,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회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2012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제17차 한인경제인대회 등 국제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영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합의된 7개 사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영남권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영남권 광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영남권 5개 시·도 경제관계관 회의' 개최 등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 열린다!

### 경북도내 전기자동차 10대 보급, 급속·완속 충전기 14기 구축

경상북도는 11월 3일 김관용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주)에코빅스 김혁규 회장으로로부터 친환경 전기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청~경북대~실내체육관~도청 구간을 시승하며 경북도의 전기버스 도입 여건과 시기 등을 점검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1년에 7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0대의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보급지역을 기반으로 14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에는 전기자동차 11대, 충전시설 11기를 추가로 구축하여 2013년 이후 일반 보급계획에 맞추어 최적화된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STX에너지(주) 영양풍력발전단지 1천억 투자 MOU 체결

###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경상북도는 11월 1일 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권영택 영양군수, 이병호 STX에너지(주) 대표이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기관단체장 및 영양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STX에너지(주)의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TX에너지(주)에서는 영양군 영양읍에 2M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2014년 1월 완공할 예정이며,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할 계획이다.

"바람의 옷 독도를 품다"

### 독도에서 디자이너 이영희 한복패션쇼 열어

경상북도는 10월 28일 독도에서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주제로 한 '독도사랑 이영희 한복패션쇼'(부제: 바람의 옷 독도를 품다)를 개최했다.



(재)안용복재단과 (사)미래문화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인 최초로 파리 프레타포르테에 참가해 20회가 넘는 컬렉션을 선보이고, 미국 뉴욕에 한복박물관을 열어 한국의 전통의상과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선 온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이영희씨의 작품을 선보였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경북 농업·농촌발전 출연금 11억원 전달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9억원, 농민사관학교 후원 2억원

경상북도는 11월 7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유태 경북농협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출연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도 농업발전을 위해 농협경북지역본부와 상호 공동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달된 출연금은 총 11억원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9억원,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민사관학교 후원 2억원이다.

"한국의 혼, 증가에서 찾는다"

### 증가문화의 메카 경상북도, 2011 증가포럼 개최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10월 26일 경주문화엑스포내 문화센터에서 도내는 물론 타시도의 종손·종부, 유림단체, 기업인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혼, 증가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1 증가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증가포럼에서는 학술강연과 증가문화 특별전, 증가음식 전시 및 시식, 도내 52개 증가의 문장(敍章) 디자인 전시 등을 진행하고, 증가문화의 세계화 일환으로 해외명문가(프랑스, 대만)를 초청하여 국내 증가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제52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 개최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 서상곤 교수 등 6명 수상**

경상북도는 10월 26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역대 문화상 수상자, 지역 문화예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북 문화상 수상자는 ▶자연과학부문 서상곤(영남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교수), ▶조형예술부문 정영진(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공연예술부문 문동욱(사)신라만파식적보존회 이사장, ▶문학부문 노중석(한국문인협회 김천지부장), ▶체육부문 이진갑(안동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언론출판부문 황재천(안동MBC 편성제작국장)씨 이다.

**2012년 제17차 세계한인경제대회 경북에서 열린다  
경북도-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간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이주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 세계한인무역협회 권병하 회장과 경제·통상, 청년인력 해외일자리창출 등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12년도 국내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경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경북도 우수상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상관련 정보교환, 마이어 거래알선 등도 공동 추진기로 했다.

**300만 도민이 하나된 "2011 경상북도민의 날"  
'경상북도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도**

경상북도는 10월 2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상효 도의회의장,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3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경북의 명예를 더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도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분들을 시상하는 "경상북도 자랑스러운 도민상"의 올해 수상자로 특별상에 도민의 날을 작곡하여 옹도 경북의 자긍심을 더 높인 안중배 작곡가를 비롯한 5명, 본상에 1997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다문화 가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루시타이 갈리나완씨(필리핀) 등 23명을 시상했다.



**울진지역자활센터 및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새 등지 마련**

경상북도는 12월 2일 울진읍 읍내리 현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취업상담, 자활정보제공 등 자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울진지역자활센터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면적 660㎡의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중증장애인자립 지원센터, 2층은 울진지역자활센터로 활용한다.

**폭력피해 여성·아동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경상북도는 11월 29일 포항 선린병원에서 이인선 정부부지사, 김태석 여성가족부차관, 이재만 경북지방경찰청장, 박승호 포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 의료, 심리치료, 수사, 법률, 사후관리 등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 하는 경북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울진 평해공고, 원자력전문 마이스터고 선정**



경상북도는 11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마이스터고 선정사업에서 울진 평해공고가 원자력 분야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고교과정부터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관련 기술과 현장직식을 습득하여 수요 맞춤형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올해 경북의 수산 신지식으로  
김명섭씨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2011년 수산 신지식인' 9명 중 1명으로 경북 의성마을황토메기영어조합법인 대표인 김명섭(35세)씨가 최종 선정됐다. 김명섭씨는 메기양식에 의성군 특산품인 마늘과 황토를 접목, 가공을 통한 유통의 다양화로 어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5회 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2011수산 신지식인 인증서 및 인증동판'을 수여받았다.

**2011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경상북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2011년도 재난관리 실태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년 전국 최우수와 2009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다시 한 번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의 인센티브로 포상금 1억원을 받았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시행하는 각종사업에 국비가 증액 지원되는 등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형태의 감이라도 박피 가능,  
자동기계 개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에서는 감 과형이 동시이외의 골감이나 뽕감 같은 어떤 형태의 감이라도 기계박피가 가능한 맞춤형 박피기 개발에 성공, 12월 2일 예천 하리면 동사리 농가에서 현장 평가를 개최해 재배 농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사과, '2011 대한민국 과실대전'  
대상 수상**

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1 대한민국 과실대전 대표과실 선발'에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박경동 농가의 사과가 압도적 점수로 영예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획득, 11월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제49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1월 9일 ‘제4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경산 E-마트에서 ‘나 하나로 가족과 이웃의 심장을 살리는 CPR’이라는 주제로 ‘CPR(심폐소생술) 강국 선포식’ 행사를 개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 운영, 관련 장비·사진 전시,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큰 유공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등 총 119명을 포상했다.

**2011 경상북도 YOYO문화제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8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노인 복지관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노인세대의 종합예술제인 ‘YOYO문화제’를 개최, ‘노풍당당, 행복한 청춘’을 주제로 11개팀 237명의 공연단이 부채춤을 비롯한 전통무용, 악기연주, 합창, 난타공연 등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쳤다.

**영양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기공식 가져**



경상북도와 영양군은 11월 8일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일원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영양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일자리지원센터는 도비 5억원, 군비 3억원 등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1,383㎡, 연면적 481.3㎡, 2층 규모로 1일 최대 80명 수용 가능한 시설로 지역일자리센터와 교육장 등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2012년 4월경에 준공한다.

**경상북도, 국제 다문화정책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대구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이주석 행정부지사, 손석락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실비아 M 마르시간 주한 필리핀 총영사와 국내·외 다문화정책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8일 대구 호텔인터볼고엑스코에서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다문화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명인주 안동소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개최한 ‘2011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안동 ‘명인주 안동소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명인주 안동소주’는 전통식품명인 6호인 박재서 명인이 빚은 증류식 소주로 지난 2010년 ‘좋은 술 박람회’에서도 시민이 뽑은 좋은 술 대상에 선정되는 등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술로 인정받고 있다.

**독도에서 최초로 도·시군 해양관계관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들 동안 독도주민속소에서 도와 동해안 5개 시·군 해양수산과장 등 해양관계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실질적 지배 강화 및 해양 경북 발전 전략 공유와 미래의 해양개발 전망’이라는 주제로 독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32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한마당축제 열려**

경상북도는 10월 27일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시각장애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 포항시내 일원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노래자랑, 종이킵 피라미드 쌓기, 감각을 이용한 바늘에 실 꿰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영덕 차유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 지난 2007년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 번 쾌거를 올렸다. 영덕 차유마을은 2004년 어촌체험 및 대개원조마을로 지정되었으나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타 시·도 우수마을 견학, 전문가 교육, 컨설팅사업 등 지자체의 지원으로 지금은 연중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전했다.

**‘2011 장애인 재활의 밤’ 개최**

경상북도는 12월 2일 안동 학가산온천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2011 장애인 재활의 밤’ 행사를 개최, 지적·자폐아동들의 사물놀이 공연, 유공자 표창, 보자기전달, 재활수기 사례발표 등을 진행했다.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개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2012년도부터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을 개원, 수목병해충 진단 및 방제방법 컨설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목병해충 피해 및 방제 등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육교재로 배부할 계획이다.

**예천 삼강주막에서 낙동강 ‘비룡교’ 기공식**

경상북도는 10월 31일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이한성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예천군수, 군의회의장 등 지역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비룡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비룡교는 예천 삼강주막에서 회룡포 전망대로 이어지는 길이 280m, 폭 5m의 교량으로서 총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 경북 우수·명품농산물 선정**

경상북도는 10월 28일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회’를 개최, 2011년 명품화 육성대상자로 상주의 백화명산포도사과영농법인(포도), 예천의 예천농협(쌀, 수수), 안동의 동심코칠리(고춧가루), 의성의 의성흑마늘영농법인(흑마늘)을 선정하고,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안동 길안사와 수출작목반 등 9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왜관 -가산간 4차로 확장공사 기공**

경상북도는 11월 2일 김관용 도지사, 이인기 국회의원, 송필각 도의회부의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왜관 IC(칠곡군 왜관읍 매펀리)에서 중앙고속도로 다부IC(가산면 다부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총 16.6km를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2011 대구·경북 여성경제인대회

경상북도는 10월 20일 대구·경북 여성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1 대구·경북 여성경제인대회'를 호텔인터블고 컨벤션홀에서 개최, 여성기업 42개 업체 우수제품을 전시하는 홍보부스 운영 및 환경경영실천 선포식, 경제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진행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대통령표창과 재정인센티브(국비) 11억원을 받게 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 전국 139개 시·군·구 평가에서도 영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홀스타인 품평회 경북젖소 우수성 재확인



경상북도 낙농가들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중앙회 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 참가하여 전국 81농가에서 출품된 156두의 출품우와 17개 부분에서 경합을 벌여 지역부분 우수를 비롯하여 품평회 최고의 영예인 그랜드 챔피언에 경북 칠곡군 대홍목장 출품우가 선정되어 경북젖소의 우수성을 재확인했다.

전통문양 캐릭터디자인 공모전 시상

경상북도는 전통문양과 지역을 상징하는 참신한 캐릭터를 소재로 한 전통문양·캐릭터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10월 20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올해 전통문양 분야 대상에 '장승마을'을 출품한 대구예술대학교 김태연씨, 캐릭터디자인 공모분야 일반부문 대상에 '사신도를 활용한 Mobile skin contents'를 출품한 한양대학교 이경용씨 등을 시상했다.

필리핀 잠발레스주 자치시장, 경북에서 농업연수

경상북도는 필리핀 잠발레스주 캐롤린 파리나스 산펠리페 시장 등 6명을 초청,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경북농업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경상북도와 잠발레스주간 교류협력 약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도내 농업기관, 농산물 가공업체와 농촌체험마을 등을 방문하여 앞선 농업현장을 견학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학습과 지역의 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1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 시상



경상북도는 10월 24일 '2011년 경상북도 자원봉사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로 대상에 영천시 오진교씨, 금상에 구미시 김영규씨, 은상에 포항시 천명숙씨, 동상에 영덕군 김옥수씨와 예천군 박정연씨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 11월 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2011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시상했다.

항공·안보 분야 경상북도 정책보좌관 위촉



경상북도는 10월 18일 항공·안보분야 경상북도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항공분야 김두만 보좌관은 20여 년간 한국항공대학 교수로 재임한 바 있으며, 안보분야 양세일 보좌관(재위촉)은 국군체육부대장을 역임한 예비역 준장출신으로 2009년부터 안보분야 정책보좌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경상북도수목원, 250년생 소나무 보호수 지정

경상북도수목원은 수목원의 생태보전구역 내 포항시 청하면 유계리와 송라면 중산리 경계부 능선의 외솔베기에 위치한 수령이 우수한 소나무 1본을 보호수로 지정했다. 이 소나무는 수령 약 250년으로 추정되며, 옛날 중산리 가래골 주민이 청하장을 보러 다니는 산길 고개의 쉼터에 자리하여 높이 14m, 가슴높이 둘레 280cm로 어른 기준 한 아름 반 정도에 이르고, 큰 우산처럼 가지가 넓게 펼쳐 있어 산속에서 보기 드문 우수한 형상을 띠고 있다.

경북도,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기관상 휩쓸어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11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지역복지사업 부문 최우수기관에 김천시·상주시·고령군이, 우수기관 구미시·경산시·영덕군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 구미시가 최우수기관, 포항·경주·문경·군위·영양·청도·성주·칠곡군도 발전부분 등의 수상기관으로 선정, 11월 18일 서울 프레스티엄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에서 4개 분야 17개의 각종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등 당면한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인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주힐튼호텔에서 관련 학계, 에너지기업 관계자, 연구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의 미래 : 그린에너지 그린혁명'이라는 주제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2011 원자력 클러스터 서울 한복판에서 논하다

경상북도는 10월 17일 서울 삼경호텔에서 원자력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원자력산업 전망과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2011원자력 클러스터 포럼'을 개최, 분과별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 전문가 특별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 경상북도의회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상호교류 · 협력 강화 위한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경상북도의회 이상효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1명은 9월 20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를 방문, 양 지방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 요게 인드라 야궁 의장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경제를 비롯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농업,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산강 제2공구 죽산보 현지방문



낙동강 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9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제2공구 죽산보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 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재점검 하는 등 특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 충남도청 이진지 및 전라북도 익산시청 방문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9월 29일 충남도청 이진지(충남 홍성군 홍북면)를 현지방문하여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도청이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충남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9월 30일에는 전라북도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한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는 등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 <제250회 임시회 결산>



## 주민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및 안건 심사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2011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개최, 10월 4일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및 의원발의 안건, 민생관련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으며,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했다.

## ▣ 도정질문요지



### ▣ 이왕식 의원(농수산위원회)

정부에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및 재협상을 요구할 생각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견해, 옹도 경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 방안, 향후 지역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 확대 시 반드시 지역 의견수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복지에산 증가에 대한 도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경북의 대표 농업지역인 의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 ▣ 김하수 의원(행정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도에서 시·군 지역간 균형발전 위해 추진한 핵심 정책, 기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중장기적인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북도에서 인수하려는 이유와 배경,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대금 및 부채를 감당할 재원 마련 방안, 출자·출연기관에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할 의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 ▣ 서정숙 의원(교육위원회)

도 산하기관·단체의 임원을 전문성 있는 인사로 기용하는데 대한 견해, 도 산하기관·단체에 장기 재직하는 임원에 대한 입장, 관용차 내구연한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행 내구연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한 견해,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1급 정비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데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 ▣ 정영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별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의향,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보험제도를 개정하는데 대한 입장, 농촌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지역간 영농 차별화를 유도하여 특성화된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대한 대책, 농촌보조사업 등 모든 지원사업을 수요자인 지역 농민중심으로 설계·추진할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울릉공항 건설을 경상북도 전략사업 제1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 울릉도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부진 및 중국 저인망 어선 유입에 대한 대책, 오징어 조업시기 및 조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 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할 경우 영세 어업인 생계대책 마련·지원에 대한 견해, 울릉도 동향 집안시설 보강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용의 등에 관해 질문했다.



### ▣ 김말변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북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적 확대와 보육수요에 대응한 환경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 열악한 농어촌 보육환경 개선대책 및 방안, 가족분노의 적정치리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 학교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종합적 안전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 ▣ '풀뿌리연구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의원연구단체인 풀뿌리연구회(대표 박진현)는 10월 5일 도의회 제2별관 회의실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날 발제를 맡은 경운대학교 정우열 교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운영위원장(위원장 윤창욱)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6기 전반기 제9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 지방자치 시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 대구경북영어마을, 경북행복재단 운영실태 파악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10월 10일 '대구경북 영어마을', '경북행복재단'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운영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경북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줄기를 당부했다.

## ▣ 김천 직지사서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10월 11일 김천 직지사서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하고, 친환경생태공원과 황야산 하야로비 공원조성 예정지, 산악자전거 조성현장, 시립미술관을 둘러보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 경남지역 우수 농수산업 현장 비교 시찰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농수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책개발과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경남지역 우수 농수산업 현장을 비교 시찰했다. 11일에는 경남 함천군 '합천농산물 유통회사', 남해군 소재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12일에는 통영시 산양읍 일대에 조성된 '통영마다목장'을 견학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위한 연찬회 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일정으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예결위 의원 역량 강화 및 내년도 본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기법 특강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연찬회를 실시했다.



### 대구·경북 시·도의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와 대구시의회(의장 도이환)는 10월 14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대구·경북 의정활동 공동사안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원 친선교류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대구·경북 시·도의원을 비롯한 출입기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 윗놀이, 피구, 합동 릴레이 등 다양한 친선행사를 진행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례회의 주재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화회의 의장 자격으로 제20회 정례회의를 주재, 행정사무감사 및 경제자유구역 현지방문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그간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성과,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 경상북도의회-해군 제1함대 사령부, 자매결연 협약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0월 28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 이상효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20여명과 김광석 해군 제1함대 사령관 등 해군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 <제251회 정례회 결산>



###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 경북도·교육청 예산 심사

## 지적·적발보다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중점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정례회를 개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국 및 도내 각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관용 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경상북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또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2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치고,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 처리했다.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전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전 및 현안사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2011년도 마지막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 도정질문요지



###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의향, 일부 언론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장에 대한 입장, 경북이 발농업직불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할 용의, 북부 지역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숙원인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 설립 요청 등에 대해 질문했다.



### ☞ 추재천 의원(교육위원회)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정례 개최 용의,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진출하는 지방교육세·도세를 규칙적으로 진출할 의향, 도내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 지원 대책, 학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입장,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 방문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개선 대책, 도청 이전 신도시에 도입 공공도서관 건립 의향, 수도권에 제2경북학숙 설치·운영할 용의 등에 대해 질문했다.



### ☞ 김세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수질오염 및 악취가 우려되는 저수지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시행 대책,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간 네트워크 구축 대책,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를 제고 위한 도차원의 대책, 지하수 방치공을 지하수 수위 및 수질 관측용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도내 노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리대책 등을 질문했다.



###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한·미 FTA에 대한 경북도 입장과 대책, 한·미 FTA 이후 농축산분야 세부대책 및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제조업 지원대책, 한·미 FTA 이후 자동차세율 개편에 따른 도내 시·군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경북도 자체에서 구제역 발생원인 규명과 확산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대규모 구제역 재발에 대한 대책,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한 경북도의 차별화된 관광정책과 관광상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 김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의거한 난개발 막을 방안, 국비예산 미반영시 도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을 계속할 방법, 낙동강 준설공사로 인한 침식현상에 대해 정부지원 요청 방안, 향후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 지자체의 예산소요 규모, 경산삼성병원 노사분규 관련 도 차원 증재방안 및 대책 등을 질문했다.



###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방식 및 재원조달방안·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 농업기술원을 "농도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분리이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여러 평가에서 최적 입지로 나타난 상주시로 이전하는데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 ▣ 도청이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예결특위 방문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박진현 위원장과 도교육 부위원장은 11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한나라당) 위원장과 장운석(한나라당), 강기정(민주당) 간사, 예결 위원 중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환, 정수성 의원, 그 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내년도 도청이전 신청사 국비 지원액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증액된 603억원을 유지시켜 줄 것과 총사업비의 증액을 건의했다.

## ▣ 초선의원모임 '초우회' 임시총회 개최

제9대 경상북도의회 초선의원 38명의 모임인 '초우회'는 11월 22일 도의회 의원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신임회장 인사 및 경상북도의회 발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윤성규 신임회장은 경상북도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전임 회장(최화철), 총무(구자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만큼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치자"고 역설했다.



## ▣ 이상호 의장, 도청 이전 국비확보 위해 국회 방문



이상호 의장은 11월 25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과 장운석·강기정 간사를 예방하고, 신도청이전 예산확보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활발한 예산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상호 의장은 유병기 충남도의회장과 동행하여 국회를 방문, 신도청 이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양 도의회가 공동보조를 맞추어 추진하기로 했다.

## ▣ 경기도의회와 지방분권강화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의원연구모임인 풀뿌리연구회(대표 박진현)가 11월 29일 영주시 순흥면 소수서원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함께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최대핵심이며, 지방재정의 확충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에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농기계, 이젠 사지 말고 빌려 쓰세요

### 도내 31개 농기계 임대 사업소, 3,803대 보유

경상북도에서 지난 2004년부터 8년간 총 25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20개 시·군(영덕, 예천, 울릉군 제외)에 31개소를 설치·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이 연간 사용량이 적거나 노동력 절감에 꼭 필요한 농기계들인 콩 탈 곡기, 논두렁 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등을 사업소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1개소에 총 보유대수는 3천8백여대이다.

농기계임대 이용방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대절차 및 이용료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하여 문의해도 가능하다.

농기계임대는 지역 농업인을 비롯한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인기가중에 대한 농기수요 급증으로 농작물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등 일시에 수요가 몰리는 농기계는 농가가 원하는 요일에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어 농기계임대는 사전에 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에서는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최종아 13세 미만) 및 국가유공자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경북도에서는 2015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가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12년에도 5개소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설치 시·군(영덕, 예천군) 2개소 등 5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의 효율성이 높고 농가 선호도가 높지만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드는 중·대형 농기계 구입을 위해 2012년도에 도 자체사업으로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053)950-2642



## 종이 '어업허가증'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자어업허가증, 2011년 시범운영 → 2012년 근해어선으로 확대 → 2013년 모든 어선 적용

경상북도는 올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시스템 시범사업의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범기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2012년 근해어선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3년 연안어선 등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경북도는 내년에 포항시 등 5개 연안 시·군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953년 종이 '어업허가증'이 발급된 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전자어업허가증은 휴대하기 편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장점과 더불어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검사정보, EEZ허가정보, TAC배분량할당증명 등 다양한 어업정보는 물론 현재 수협에서 운영 중인 면세유 카드와도 연계가 되는 장점과 더불어, 포털사이트(www.greensea.go.kr)를 통한 원클릭 서비스로 어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성으로 인해 어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담당부서 : 수산진흥과 053)950-2676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 ‘상주꽃감’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벌미!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상주꽃감! 꽃감은 비타민C 함유량이 사과와 8~10배, 비타민A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좋은 최고의 ‘종합비타민제’라고 할 수 있다.

### 꽃감의 본고장 상주!

감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과수로 오랜 재배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상주는 삼백(三白)의 고장으로, 상주꽃감은 예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 특산물로서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한 기록이 있다.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시 감은 항혈전작용과 혈액순환에 효과 있는 스크폴리틴과 고형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달고 맛있는 꽃감 만들기에 적합하다. 상주의 동서서고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자연건조에 유리하고 토질이 비옥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기후가 온화하여 상주지역은 꽃감의 재료인 동시 감의 재배지로 적지이다.

감은 다른 과수 작물과 달리 기후, 특히 온도(최적 재배온도 : 연평균 11~15℃)와 지리적 여건에 민감한 작물이다. 이에 상주지역은 꽃감 건조에 유리한 동서서고의 지형적인 특징과 비옥한 토지와 온난한



기후로 인하여 꽃감재배의 최적지로 전국 제1의 꽃감 생산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주시는 꽃감 농가 2,878호가 연간 5,961톤의 꽃감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액 2,000억 원 정도이다.

### ‘하늘 아래 첫 감나무’ 보존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마을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현존 우리나라 최고령 감나무인 ‘하늘 아래 첫 감나무’는 추위에 약한 감나무를 고욤나무에 접목하여 내한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과학적 영농기술을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주시 외남면 감나무는 수령이 75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선 세종 때 이 나무에서 탄 감으로 꽃감을 만들어 진상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근거해 계산한 것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결과 이 감나무의 수령은 530년이고, 뿌리부분과 잎 부분의 DNA가 서로 다른 우리나라 최고령의 접목 유실수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늘 아래 첫 감나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외남면 감나무는 동화책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한다. 한쪽 다리를 다친 파랑새가 사별국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물어다 준 고욤나무에 어머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 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얻어온 감나무 모목을 접붙인 것이 현재의 꽃감의 도시로 유명한 상주시 감나무의 효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12호 된 상주꽃감

상주꽃감은 2005년 9월 6일 상주시 외남면 흥평리 등 99.8ha가 전국 최초로 ‘꽃감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주 꽃감 생산을 위하여 2007년 6월 ‘상주 꽃감 지리적 표시(산림청 12호)’를 등록했다.

또 2010년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상주꽃감 등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시한 전통 추석선물용 다과를 시식하는 자리에서 상주 꽃감이 명절선물 등으로 최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독도에서의 생생한 생활상 담은  
영문판 화보집  
‘The Story of Dokdo Residents’  
(독도주민들의 이야기) 발간



경상북도는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서 생활하며 독도를 이용하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담은 영문판 화보집 'The Story of Dokdo Residents(독도주민들의 이야기)'를 발간했다.

화보집은 가로 23cm, 세로 27cm의 국배판 크기로 총 105쪽 분량으로 제작, 1천부를 해외공관 및 재외한국문화원, 재외한국어교육원 등에 배부했다.

화보집 '독도주민들의 이야기'의 주요내용은 독도에서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이용하기까지의 실상을 여행기, 개척기, 정착기의 3시기로 나누어 정리했다.

여행기는 1950년대에 독도를 수비하며 생활해왔던 의용수비대원들과 제주해녀들의 독도생활 모습을, 개척기는 독도주민 1호인 최종덕씨가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스스로 독도에 거주처를 만들고 어장을 확장해 가는 모습을, 정착기는 현 독도주민인 김성도씨 부부가 독도에서 어로활동하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담았다.

경북도는 일본어판 화보집도 발간하여 독도 영유권의 실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담당부서 : 독도수호과 053)950-2283



정상 체온보다  
1℃ 높이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

노화를 막는 +1℃ 체온건강법

건강한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37.1℃사이, 체온건강법이란 체온을 정상 범위 내에서 자신의 평소 수준보다 1℃ 높이면 면역력이 강화돼 질병을 막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몸은 평소 체온보다 따뜻하게 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면역기능을 가진 백혈구의 활동력이 높아진다. 체온 상승의 효과는 크게 혈액 순환 개선과 기초대사량 증가이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매일 한 번씩 올리는 것과 항상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매일 한 번씩 올리는 것은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햇볕을 쬐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의 방법이 있다.

체온을 항상 높게 유지하려면 사흘에 한 번씩은 꾸준히 근육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근육 트레이닝은 아령 등 기구를 이용하는 무산소운동을 하고 달리기 등 유산소운동을 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저체온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혈류 장애 및 세포활력 저하로 이어져 체온 저하를 유발한다. 저체온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노화를 재촉하기도 한다.

저체온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억제하려면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 취침 4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기, 오후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기, 불을 켜고 자지 않기, 자다가 뺏을 때 억지로 다시 자지 않기 등의 수칙을 지키면 좋다고 한다.

체온건강법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늘려 신진대사 속도를 빠르게 해 체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수시로 체온을 끌어올려 주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